장수군 · 상주시공무직지부, 고향사랑 상호기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소속 지부인 장수군지부(지부장 윤동수)와 상주시지부(지부장 장현석)는 지난 12일 영호남 화합과 상호 상생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영호남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로의 지자체에 200만원씩 기부했다.

윤동수 장수군공무직노조 지부장은 " 이번 상호 기부를 시작으로 양 지역에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상호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장수군 상주시 공무직노조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상호기부가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상전초 35회 동창회,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진안군 상전초등학교 제35회 동창회(회장 박기열)회원 일동은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11일 진안군수실에서 개최된 기탁식에는 제35회 상전초 동창회 초대회장인 최한돈 씨가 참석해 "나이가 들고 사는 곳이 달라져도 고향에 대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다른 많은 향우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고향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사회와 향우인들의 관심과 지지가 고향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더불어행복한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진안군협의회(회장 최순석)는 지난 12일 성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더불어 행복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30명의 회원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은 읍·면 순회 사업으로 이 날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이론 교육(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체험 교육(공기정화식물 식재)을 실시해 회원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의 시간을 가졌다.

최순석 회장은 "회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 하면 살기 좋은 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치매협의체 개최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라영현)는 12일 진안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치매협의체는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유관기관 단체의 연계를 통해 치매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치매안심센터장인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치매관련 분야 공무원 5명과 대한노인회 진안지회장을 비롯한 지역유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민간부문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2024년 상반기 치매예방관리사업 성과 보고 및 2024년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치매예방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침수피해 복구현장 한마음으로 달려가

전북자봉센터, 침수가옥 · 상가 · 이재민 급식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 총력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수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 복구지원활동에 나섰다.

센터는 많은 비가 내린 지난 10일부터 군산·익산·완주 일대 주택가에 400여명을 투입해 수해 복구활동에 나섰으며, 수해를 입은 익산시 여산면과 완주군 운주면 주민 300여 분의 급식을 지원하는 등 힘을 보탰다.

앞으로 장기간 장마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지원에 나서고,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집중호우가 발생되기 전부터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각종 차량(이동급식차량, 이동세탁 차량 등)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4개 시·군 센터에 비상연락 채널을 통해 호우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및 전파하고 있다.

침수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원 및 자원봉사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063-227-13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도내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호기자

고창군 지사협, '찰칵 나의 청춘프로필 사업' 큰 호응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현규)가 6월부터 진행하는 '찰칵! 나의 청춘 프로필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촬영 프로그램은 6월 14일 고창읍과 고수면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 진행중이다.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창군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어르신들의 멋진 모습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봉사자들이 시종일관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어르신 한분 한분의 멋진 순간을 추억으로 담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12일 오전 심원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사진촬영 중인 어르신들과 고창지사협, 사진작가협회를 격려했다.

고창 지사협은 고창치유의 숲과 연계한 오감체험 고창 나들이로 주민 활력도를 높이고, 복지가동대를 꾸려 소규모 주거개선과 생태, 의료,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추억으로 선물해 주신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창군 사진작가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호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관내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2021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618명의 어르신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건강측정기기(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연동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인력이 비대면 건강컨설팅과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 미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일원화해 1:1 대면 건강관리를 병행해 어르신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화면형 AI스피커 제공으로 스마트폰 미보유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건강 자조모임 구성·운영으로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수행을 돕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해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을 7월 19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희연 방문보건팀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청 직원들, 수해복구에 구슬땀

전북자치도청 공무원들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완주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복구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전북도는 12일 본청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완주군 운주면의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집안 내 쌓인 토사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8~10일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26가구를 비롯해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전북도 직원들은 복구 작업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어 막막해 하는 주민들에 힘을 보탰다.

유호연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수해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복구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방학 맞아 15일부터 외식 식사교환권 전달

남원시는 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100여 명에게 외식 체험을 위한 식사교환권을 전달한다.

이번 외식 체험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 가족이 외식을 나서기 쉽지 않은 다자녀가정을 선정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으로 가족애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마련했으며, 이마트 남원점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써달라고 남원시 드림스타트에 전달한 후원금 2백만원으로 식사교환권을 외식 나들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 남원점은 2017년 드림스타트와의 협약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체험, 크리스마스 행사 등 후원금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등으로 후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존중받는 민원실 조성 '앞장'

남원시가 민원인과 민원담당 직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타 지자체에 앞서 2021년 12월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창구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 전화 운영 △경찰서 연계형 비상벨 △민원실 CCTV △휴대용 웨어러블 캠 보급 △악성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반기별 비상대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민원담당 직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뿐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한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며, 하반기에는 안전한 민원환경 강화 조치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모든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위와 같은 조치는 민원 담당자의 보호를 넘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이 초복을 맞아 지난 11일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 각 가정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대상자 1,030명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 원기회복! 삼계탕이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닭과 한약재로 구성돼 있는 삼계탕 키트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각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함께 삼계탕을 조리해 제공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기운을 보충하고 원기 회복을 도와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회원 30명은 지난 12일 남원 향교에서 마을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덥고 힘든 시기를 잠시나마 잊게 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여름철 복날을 맞이하여 새마을운동 회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에서 삼계탕과 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배종선 남원시지회장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지부장 이승은)가 지난 13일 제23회 하소백련축제를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청하면 하소백련지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는 지역축제 개최 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소백련축제장 내 푸드트럭 및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담합, 계량 위반행위 등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을 독려했다.

최근 지역축제 개최 시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시는 바가지요금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